

<나의 삶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태풍속에서 만난 우리

텔런트 최민수

부모님이 헤어진 내 나이 두 살 때부터 나는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규정되어졌다. 어두운 표정이어야만 하는 아이, 웃음을 몰라야만 하는 아이, 사납기만 해야 하는 아이. 난 내 속살을 보이기 싫어 더욱 표정이 굳어만 갔고 거친 외양을 띄어 갔다.

아버지 생각을 떨쳐 버리려 배낭에서 성경책을 꺼내 읽었다. 대학에 온 후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예수전도단의 제자훈련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반듯하지만은 않은 내 모습에 나를 문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닐 것 같았다.

1993년 6월, 난 아내를 미스코리아 무대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는 MBC주말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 이후였기에 내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기 텔런트라 불러도 나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방에 혼자 있었다. 가슴 저 밑에서 냉기가 스며들 때마다 결코 누구도 나와 온기를 나눠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처음 본 순간, 어려서부터 내 영혼을 감싸 온 눈빛이 거기 있었다.

난 방송국으로 달려가 미스코리아 자료철을 뒤졌다. 강주는. 교포인 그녀는 일주일 후에 캐나다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다 차기 하루 전, 상상 속의 그 여인이 현실이 되어 내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MBC스튜디오에서 주말 연속극 '엄마의 바다'를 촬영 중이었다. 막 한 씬을 녹화한 후 다른 사람들의 씬을 찍는 동안 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수씨, 잠깐 이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네" 대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하고 건성으로 답하며 머리를 매만지는데

"안녕하세요." 하며 손이 내 앞으로 왔다.

그날 무대에서 내가 에스코트했던 그 손. 난 고개를 확 들었다. 그녀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진행한 연출가의 호의로 방송국을 구경 중이었다. 난 내게 사인을 부탁하는 그녀를 데리고 지하 커피숍으로 갔다. 어떻게 미스코리아에 나오게 되었냐는 등 유명한 배우인가 보다는 등 너무도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내 가슴은 끝없이 다른 말을 쏟아 내고 있었다.

대화 중에 그녀가 자주 기도를 드린다고 했다.

"크리스천이세요?"

"네."

분명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드디어 내게...' 돌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로의 영혼이 통하고 있었다. 후에 들으니 그 순간 아내에게 번개가 치듯 커다란 음성이 울려왔다고 한다. 그 음성은 지금 보고 있는 남자의 눈이 영원히 쳐다볼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바로 청혼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갔다.

1994년, 우린 아내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태풍 속에 휩싸여 결혼을 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O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1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3월24일
☎269-8677/021-292-1639. ☒10 Bu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화론(進化論)에서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 저절로 진화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고대 희랍 철학자 아낙시스만도로스는 다윈보다 앞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나아가서 짐승이 동물, 파충류, 개구리, 물고기다. 물고기는 저절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만물은 결국 쪼개어 나가면 원자(原子)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신(神)이란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 맞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해체되면 아무 뜻도 없는 원자로 남겨집니까?

물과 공기와 흙을 적당하게 섞어, 거기에 햇빛을 쬐어주고 비를 내려주고 데웠다가 식혔다가, 천둥치고 번개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하다보면 사람이며 나뭇잎이며 물고기가 나타나고, 또 꽃과 새들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내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생명의 신비와 귀중함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떠서 태어난 신비의 생명체들입니다.



할렘은 뉴욕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월 스트리트와 메디슨 애비뉴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감추어야 할 부분이 클수록 보여주려는 위선은 더욱 요란합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5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0(시편 27)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6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경석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 6:12-13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등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돌보심"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주기도문송& 찬미64"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3.4월 예배 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time봉사	안내:김교섭
3/25	이선우	노은숙	한 건	최윤호,송정섭	최윤호,송정섭
4/1	이영권	김영태	최재학,노은숙	한 건, 김시욱	최재학,정희자
8	임혜자	김영길	김교섭,정희자	김성국,안은주	박일영,임혜자
15	정희자	김교섭	김시욱,장선주	김교섭,정희자	최윤호,송정섭
22	조순정	한은영	김영길,신경화	박일영,임혜자	최재학,정희자
29	최윤호	한 건	박일영,임혜자	김영길,신경화	박일영,임혜자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시시오.
 룻,삼하: 1명. 에스더,욥,시,잠언:1명. 시편(6) 1명
-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성경,찬송"
- 사순절 넷째주간입니다(26일째-32일째)
- 오늘은 사람이 실천"이삭줍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삭줍기 헌금통 없으신 분께서는 예배위원장(김영길 집사)께 문의 바랍니다.
- 등록교인 성숙자반 공부(죄본,전도론)
*일시: 매주 금요일(4회) 3월23일-4월13일
*대상: 기초성경공부 3,4기
*장소: 지찬영 집사
- 동역자회의
*목사,장로,각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동역자회의를 다음주일에 갖습니다
- 등록하심을 기뻐합니다.
*김동구,엄주화,김준영(아들), 146Top Rd. Rd2. Albany . ☎
- 교우소식
*정의령 집사. 한국과 호주 방문키 위해 지난주간 출국.
*이정수 성도. 부모님 방문위해 출국(29일)
*박용태 집사. Auckland 병원 5층 B7
- 4월의 교회력과 모임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8일	종려(고난주간)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9-14) 성 금요일예배
15일	부활주일	Easter Monday 낚시대회
22일		
29일	이삭줍기봉헌	